

KIA 에이스 헥터 ‘황금장갑’ 품을까

15승·최다 이닝…두산 니퍼트·보우덴 등과 투수 6파전

‘타격 3관왕’ 최형우·필·이범호·김주찬·나지완도 후보

2016시즌 ‘황금장갑’의 주인공을 노리는 45명의 명단이 발표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5일 각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에게 수여하는 골든글러브 후보 45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골든글러브 후보는 올 시즌 출장 경기수와 투구, 공격, 수비 성적 등을 반영해 각 포지션별 기준에 따라 선정했다. 또 정규 시즌 개인 부문별 1위 선수는 자동으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KIA에서는 올 시즌 ‘에이스’로 우뚝 섰던 노예시(사진)와 함께 브렛 필(1루수), 이범호(3루수), 김주찬(외야수), 나지완(지명 타자)이 후보로 선정됐다. FA를 통해서 유니폼을 갈아입게 된 최형우도 KIA 선수로 외야수 부문 수상을 노린다.

투수 부문은 평균자책점이 3.40 이하이면서 15승 이상 또는 30세이브 이상 거둔 선수로 제한됐으면 헥터와 함께 니퍼트(승리·평균자책점·승률 1위)·보우덴(탈삼진 1위)·장원준(이상 두산), 김세현(세이브 1위)·이보근(홀드 1위·이상 넥센) 등 6명이 후보에 올랐다.

포수 부문은 96경기 이상 포수로 출전하고 타율이 0.290 이상인 두산 양의지, SK 이재원, 삼성 이지영의 싸움으로 압축됐다.

야수는 해당 부문에서 수비로 96경기 이상 출전, 규정타석 이상의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타율은 각 포지션별 성적에 따라 정했다.

1루수와 2루수, 3루수는 타율이 0.310 이상 선수들로 구성됐다. 1루수 후보는 필과 두산 오재일, NC 테이즈(장타율·홈런 1위), 삼성 구자욱 등 4명이다. 2루수는

NC 박민우, 넥센 서건창, SK 김성현, 한화 정근우(득점 1위), kt 박경수 등 5명이며 3루수는 이범호와 SK 최정(홈런 1위), 한화 송광민, 롯데 황재균 등 4명이다. 유격수는 타율 0.280 이상의 두산 김재호, 넥센 김하성, LG 오지환, SK 고메즈가 후보가 됐다.

3개의 골든글러브가 주어지는 외야의 경쟁이 뜨겁다. 타율 0.310 이상인 선수로 ‘타격 3관왕(타율·안타·타점)’ 최형우를 필두로 김재환·민병헌·박건우(이상 두산)이 집안 싸움을 벌인다. 또 김주찬과 넥센 고종욱, SK 정의운, 한화 이용규, 김문호·손아섭(이상 롯데), 삼성 박해민(도루 1위), 유한준·이대형(이상 kt)까지 총 14명이 후보에 올랐다.

지명타자 후보는 지명타자 포함 96경기 이상에 출전하고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 중 타율 0.300 이상을 기록한 선수로 구성됐다. 나지완과 두산 에반스, LG 박용택, 한화 김태균(홈루율 1위), 삼성 이승엽 등 5명이다.

골든글러브 선정 투표는 올 시즌 KBO 리그를 담당한 취재기자과 사진기자, 중계 담당 PD, 아나운서, 해설위원 등 미디어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9일까지 진행된다. 수상자는 시상식 당일 현장에서 공개된다.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오는 13일 오후 4시 40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 그랜드볼룸(컨벤션센터 2층)에서 열린다. 시상식은 지상파 TV MBC와 인터넷 NAVER, DAUM을 통해 생중계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빙속 이승훈·김보름 매스스타트 銅

월드컵 3차대회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남녀 매스스타트의 ‘간판스타’ 이승훈(28·대한항공)과 김보름(23·강원도청)이 2016·2017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에서 나란히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 선수는 5일(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대회 매스스타트에서 각각 남녀부 3위를 차지했다.

이승훈은 7분 34초 79의 기록으로 안드레아 지오바니니(이탈리아·7분31초 57), 에베르트 후베르프(네덜란드·7분34초 28)에 이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는 이번 대회에서 랭킹포인트 70점을 추가해 총점 182점으로 매스스타트 월드컵랭킹 1위 자리를 꿰찼다. 이승훈은 1

차 대회 금메달에 이어 3차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하며 평창 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종목의 메달 전망을 밝혔다.

여자부의 김보름도 동메달을 수확했다. 그는 8분29초51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1차 대회 우승자인 캐나다의 이바니 블롱댕(8분29초28), 일본의 다카기 나나(8분29초46)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랭킹 포인트 70점을 획득한 김보름은 총점 240점으로 블롱댕(랭킹포인트 280점)에 이어 월드컵랭킹 2위를 유지했다. 보름은 1차 대회 동메달, 2차 대회 금메달에 이어 3개 대회 연속 메달 획득 행진을 계속했다.

이번 경기를 끝으로 월드컵 3차 대회는 막을 내렸다. 월드컵 4차 대회는 네덜란드 헤이렌베인에서 10일부터 열린다. /연합뉴스

‘3전4기’ 이정은 내년 LPGA 진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통산 5승을 올린 이정은(28·교촌F&B)이 2017년 미국 무대에 진출한다.

이정은은 5일 미국 플로리다주 데이토나비치의 LPGA인터내셔널 골프장(파72)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웰리파잉스쿨 최종전 마지막 날 5라운드에서 3타를 줄였다. 1~5라운드 합계 10언더파 350타를 친 이정은은 단독 5위에 올라 내년 L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했다.

이정은은 경기가 끝난 뒤 LPGA투어와 인터뷰에서 “재작년부터 3년 연속 웰리파잉스쿨에 도전했다”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해냈다는 기분이다.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이정은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10번째 뛰는 고종 선수다. 2009년에는 2승을 올리며 상급랭킹 4위

에 올랐고 작년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까지 통산 5승을 차지한 정상급 실력을 지녔다. 장타력에 아이언샷 정확도가 투어에서 손꼽힌다.

그는 오랫동안 미국 무대를 동경했다. 하지만 작년과 재작년 웰리파잉스쿨에서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조건부 출전권을 받아 미국 원정에 나서기도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

이정은은 “작년과 재작년 도전 때는 사실 샷이 좋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는 샷이 잘 됐다. 마지막날 바람이 강했는데도 샷이 좋아 버디를 많이 잡아냈다”고 말했다.

LPGA 2부 투어에서 활동한 김민지는 1오버파 361타로 공동 35위에 올라 조건부 출전권을 받았다. 수석 합격의 영광은 13언더파 347타를 친 제이 마리 그린(미국)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

日 오타니, 다르빗슈와 동급

고졸 5년차 연봉 28억원

일본프로야구 최고의 스타 선수 오타니 쇼헤이(22·닛폰햄 파이터스)가 팀 선배 다르빗슈 유(30·텍사스 레인저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일본 ‘닛칸 스포츠’는 5일 오타니가 올해 연봉 2억 엔(약 20억6000만원)에서 7000만엔 오른 2억7000만엔(약 28억원)에 계약을 마쳤다고 전했다.

2013년 프로 무대에 뛰어든 오타니는 역대 고졸 5년 차 연봉 최고액 타이 기록을 수립했다.

역대 일본야구 5년 차 연봉 1위는 2013년 셋츠 다다시(소프트뱅크 다다시)가 기록한 2억9000만엔(약 30억5000만원)이며, 고졸 선수 중에서는 다르빗슈가 2009년 받은 2억7000만엔이 이제까지 최고 기록이었다.

올해 오타니는 투수로 10승, 타자로 3

할 타율에 홈런 20개를 넘기면서 재능을 마음껏 뽐냈다.

투수 성적은 10승 4패 1홀드 평균자책점 1.86이며, 타자로는 타율 0.322에 홈런 22개 67타점 65득점을 올렸다.

닛폰햄은 10년 만에 일본시리즈 정상에 올랐고, 오타니는 만장일치에 1표 모자란 압도적인 결과로 퍼시픽리그 MVP에 등극했다.

또한, 올해 시속 165km 강속구를 던져 일본프로야구 최고 구속(비공인) 신기록을 수립했고, 역대 첫 투수와 지명타자 두 부문 베스트 나인으로 선정돼 일본프로야구 역사를 새로 썼다.

연봉에서도 기록을 세운 오타니지만, 정작 그는 줄곧 “다른 사람의 연봉뿐만 아니라, 내 연봉도 관심이 없다”고 말한다. /연합뉴스



타이거 우즈가 5일 바하마 뉴프로비던스의 올버니 골프클럽에서 열린 히어로 월드챌린지 골프대회 12번홀에서 티샷한 뒤 공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히어로 월드챌린지 골프 1년 4개월 만에 성공적 복귀전…전성기 실력 되찾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1·미국)가 1년 4개월 만에 치른 복귀전에서 18명 가운데 15위를 기록했다.

우즈는 5일(한국시간) 바하마 뉴프로비던스의 올버니 골프클럽(파72·7302야드)에서 열린 히어로 월드챌린지 골프대회(총상금 350만 달러)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3개, 더블보기 3개로 4

오버파 76타를 쳤다. 최종합계 4언더파 284타의 성적을 낸 우즈는 출전 선수 18명 가운데 15위로 대회를 마쳤다.

지난해 8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윈덤 챔피언십 이후 허리 부상 때문에 대회에 나오지 못하다가 이번 대회를 통해 복귀전을 치른 우즈는 마지막 날 부진해 아쉬움을 남겼다.

우즈는 1라운드에서는 초반 8개 홀에서 버디만 4개를 잡아내며 공동 선두에 나섰지만 이후 타수를 잃어 첫날에는 17위로 부진했다. 그러나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를 몰아치는 전성기 시절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공동 9위 오르기도 했다.

3라운드에서도 10위권 성적을 유지했던 우즈는 하지만 4라운드에서 여느 대회와

마찬가지로 특유의 빨간색 티셔츠를 입고 나왔으나 타수를 잃으며 결국 하위권으로 대회를 마쳤다.

마쓰야마 히데키(일본)가 18언더파 270타로 우승해 우승 상금 100만 달러(약 11억70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 헨리크 스텐손(스웨덴)이 16언더파 272타, 2타 차 준우승을 차지했다. /연합뉴스



KIA 김다원·김선빈 잇따라 화촉

KIA 타이거즈 외야수 김다원(31·사진)과 내야수 김선빈(27)이 나란히 화촉을 밝힌다.

김다원은 10일 오후 3시10분 광주 라페스타웨딩홀 4층 디아망홀에서 신부 김소라(28)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지인의 소개로 처음 김 씨를 만난 김다원은 4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다.

김다원-김소라 커플은 하와이로 5박7일간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광주에 신집 살림을 차릴 예정이다.

내야수 김선빈도 17일 오후 1시30분 광주광역시 라페스타웨딩홀 4층 디아망홀에서 신부 송미지(25)씨와 웨딩마치를 올린다.

오빠-동생으로 지내던 두 사람은 4년 전 연인으로 발전했으며,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친 뒤 결혼식을 올리게 됐다. 두 사람은 김선빈의 군입대 전인 지난 2014년 이미 혼인신고를 마쳤다. 김선빈-송미지 부부는 푸켓으로 3박5일간 신혼여행을 떠난다. /김여울기자 wool@